

로스쿨 교수의 임용은 과연 공정한가?



이창현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변호사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의 언론보도과정에서 고려대 로스쿨의 K교수가 해양법전문가로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분이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실제 선원생활까지 한 경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즉, ‘고려대 로스쿨의 교수들은 대부분 고려대나 서울대를 졸업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해양대 출신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 인적사항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항해사와 선장 경력은 있지만 이후에 다시 고려대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석사와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것이었다. 해양법전문가라곤 하지만 만일 그분이 고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고대 교수가 과연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묘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학력사항을 모두 살펴보았더니 전임교수 중 내국인으로 이름이 표시된 53명 중에서 고려대 출신은 42명이고, 서울대 출신은 10명이었다. 1명은 미국 대학을 졸업하였다(내국인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국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임). 따라서 고려대 로스쿨 교수들은 자교 출신이 아니면 국내 대학 출신으로는 서울대뿐이었다.

‘설마 연세대 로스쿨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연세대 교수의 학력사항도 모두 살펴보았더니 전임교수 중 내국인으로 이름이 표시된 46명 중에서 연세대 출신이 28명, 서울대 출신이 17명, 미국 대학 출신이 1명이었다. 고려대와 사실상 똑 같았다. 오래 전에 이화여대 법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대 법대에 남자 교수는 서울대 출신이고, 여자 교수는 이대 출신이라는 말이 오고갔는데, 이와 같은 희한한 인적구성에 대해 ‘우연히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었다. 그래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수 학력사항을 살펴보았더니 전임교수 37명 중에서 이화여대 출신이 9명, 서울대 출신이 27명, 미국 대학 출신이 1명이었다. 여전히 ‘남자는 서울대, 여자는 이화여대’ 였다.

위 3개 대학 로스쿨의 교수현황을 살펴보고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사법시험제도에서 로스쿨제도로 바뀌면서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조인을 배출해야 할 교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로스쿨의 평가기준에 의하면 교수진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수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대학 출신이 계속 임용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지키면서도 교묘히 자기들끼리 뭉치고 철저히 남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서울대라는 특정대학 출신으로만 충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전에는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위 3개 대학보다 다양한 대학출신을 영입하여 나름대로 구색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재직 중인 한국외대는 한국외대와 서울대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대학 출신들도 비교적 고루 채용되어 있는 편인데, 앞으로 위 3개 대학과 비슷하게 바뀌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과연 위 3개 대학의 교수 임용은 공정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교 출신과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정말 뽑을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던 말인가. 고려대 출신이 고려대에는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연세대에는 단 1명도 없었던 말인가. 임용과정이야 잘 모르지만 결과만 보아도 솔직히 자명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전혀 뽑지를 않았으니 이제는 누가 감히 임용신청조차 할 수가 있겠는가.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나 검찰인사의 객관성 등의 이슈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비판하는 법대교수들을 보면 필자는 의아함을 훨씬 뛰어 넘어 뻔

뻘함의 극치를 느낀다. 법원이나 검찰의 인사는 그래도 기본 양식에 따르고 있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수공을 하는 편이고 그런 점에서 교수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혹자는 교육부의 정책입안을 서울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로스쿨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평가항목에서 대학마다 교수를 특정대학 출신으로 임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서울대를 제외한 대학들 중에서 소위 명문대이고 역사가 오래 될수록 이와 같은 상황은 계속 심화될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결국 서울대와 극소수 자교 출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교수들의 속좁은 마음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 자신이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발전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장에는 일정 수준의 여성 교수 비율을 확보하도록 한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교와 서울대 출신이 아닌 제3의 대학 출신도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강제로라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국가적, 사회적 이슈만 생기면 시국선언과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남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수들은 과연 언제까지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고쳐나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로스쿨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이즈음 이들에게 정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